

## 경주 양북면 봉길리, 방폐장 예정 구역 지정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가 방폐장 예정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방폐장 건설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자부 제2차관, 이원걸) 를 개최하고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부지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건설을 위한 전원 개발 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했다.

11월 2일 경주시가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된 이후, 산자부는 그동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 등 10개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봉길리 일대는 방폐장이 들어설 대상 부지 경계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돼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금지된다.

또 사업자인 한수원이 토지 등에 대한 매수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 부지 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등 각종 조사 활동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지원금 지급과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의 유치 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방폐장 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약 64만평. 이중 40만평은 기존의 신월성 1,2호기 원전 부지이다. 신월성 원전 부지는 부지 조사 및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지난해 9월 원전 건설을 위한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경주시 봉길리 일대가 법적 절차에 따라 방폐장 부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향후 시설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내년부터 본격 착수될 각종 조사 과정 및 처분 방식 결정 등에 지자체,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처분장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지자체 협의하에 가능한 초기에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조사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IAEA 안전성 검증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부지 특성 조사, 설계 및 건설, 안전성 평가 등 전체 사업 공정에 대해 IAEA의 검토와 검증을 단계적으로 추

진할 계획이다.

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는 가능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8월까지 이전 부지를 포함해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처분 시설의 기반 공사 착공 예정 시점인 2007년 하반기 사옥 건설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폐장의 처분 방식 결정을 위해 한국전력기술(주)를 비롯해 처분 시설 설계 경험을 갖춘 핀란드 SNR사, 스페인 INITEC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처분 시설 기본 설계를 수행중이다.

정부는 방폐장 처분 방식은 국내외 전문 기관의 검토 및 시추 결과 등을 토대로 지자체, 지역 주민, 국내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폐장 처분 사업 수행 절차 개요

#### 1단계-사업자의 조사·설계 및 인허가 신청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내년 초부터 약 1년 6개월간 부지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 각종 조사를 수행하고 처분 시설 및 수송 선박 설계 등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부지 특성 조사는 수습공의 시추 조사 등을 포함한 상세한 부지 조사를 수행하여 설계 및 안전성 평가에 활용하며, 환경 영향 평가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는 4계절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여 처분시설이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건설·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 조사 및 설계를 거쳐 2007년 중반에 산자부의 실시 계획 승인 및 과기부의 건설·운영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전력기술(주) 및 처분 시설 설계 경험을 갖춘 핀란드 SNR사, 스페인 INITEC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처분 시설 기본 설계를 수행중이며, 12공

의 추가 시추 및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현장 계측 작업도 수행중에 있으며, 처분 방식은 동 국내외 전문기관의 검토 및 시추 결과 등을 토대로 지자체, 지역주민, 국내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 2단계-산자부 실시 계획 승인

실시 계획은 사업자의 세부 사업계획으로서 전원 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 수행 세부 계획서 및 환경 영향 평가서 등을 산자부에 제출하면, 산자부 장관은 지자체 의견 수렴 및 환경부 등 10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된다.

산자부 장관의 동 계획 승인에 따라 총 21개 관계 법령 사항에 대해 허가, 인가, 승인, 협의 등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 사업자는 처분 시설 건설을 위한 제반 인허가 사항 일체를 승인 받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공공 시설(도로, 전기, 상수도 시설 등) 설치 및 부지 정리 공사 착수 등 처분 시설 건설을 위한 기반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

#### 3단계-과기부 건설·운영 허가

처분 시설 건설·운영 허가는 원자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제반 요건을 심의,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허가하는 절차로서, 사업자는 안전성 분석 보고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안전 관리 규정,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건설 및 운영 품질 보증 계획서 등의 자료를 과기부에 제출하며, 과기부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전문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심사를 수행하고 필요시 관계 부처 협의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운영 허가를 승인한다.

#### 4단계-건설 공사 착수 및 운영 개시

사업자는 산자부의 실시 계획 승인 이후 기반 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과기부의 건설·운영 허가에 따라 처분 시설 공사에 착수한다.

금년에 건설될 처분장은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며, 향후 약 80만 드럼 규모로 단계별로 증설될 예정이다. 지원 시설로서 연구 시설, 인수·검사 시설, 홍보관, 복지 시설 등이 함께 건설될 예정이다.

### 원자력, 청정 에너지로 공식 인정

아·태 6개국 각료회의, 청정 개발 파트너십 출범



호주 시드니에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아·태 6개국 각료 회의 모습

원자력이 청정 에너지로 공식 인정됐다.

호주 시드니에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아·태 6개국 각료회의에 참석한 6개국 장관들은 1월 12일 「청정 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 6개국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차세대 핵분열과 융합 에너지 등을 장기 개발기술 과제에 포함시켰다.

산업자원부는 1월 12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아·태 6개국 기후변화 파트너십 각료 회의에서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 6개국 파트너십」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6개국 파트너십에서 한국은 이희범 산자부 장관이 「아·태 에너지 기술협력센터」를 제안해 공동성명에 반영됐으며, 8개 분야별 태스크포스(신재생 에너지, 발전, 철강, 시멘트 등) 중 재생 에너지와 건물·가전 기기 등 2개 부문 태스크포스의 의장국을 맡았

다.

특히, 6개국 파트너십은 부속서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저배출 등을 비롯해 수소, 차세대 핵분열 및 융합 에너지 등을 장기 개발 기술에 포함함으로써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로 공식 인정했다.

이번 파트너십 출범에 참여한 6개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의 현실과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이 전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향후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6개국 파트너십은 이번 협력을 통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대기 오염, 에너지 안정성, 온실 가스 등 관련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트너십은 또 기후 변화는 심각한 문제이며, 실질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고, 기후 변화 파트너십은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파트너십은 기후변화협약에 부합하고, 교토 의정서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런 의미에서 이 파트너십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고 동시에 대기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하시키는 기술의 개발·확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전 건설 수용도’ 처음으로 50% 넘어

산자부, 지난해 12월 전화 여론조사 결과 발표

거주지내 원전 건설 수용도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산업자원부는 1월 4일 지난해 12월 전국 성인남녀 1,5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원자력 발전 필요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신뢰도 95%)를 실시했다.

산자부의 전화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거주지내 원전 건설 수용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04년 26.0%에 그쳤던 원전 건설 수용도는 무려 24.5%나 높아져 처음으로 50.5%를 기록했다.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주지내 원전 건설 수용도 변화(찬성률)=95년(12.4%), 97년(22.1%), 2000년(10.9%), 2002년(16.2%), 2003년(29.1%), 2004년(50.5%)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응답도 70.6%가 안전하다고 대답했다. 2004년에는 59.4%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원전의 추가 건설에 대한 응답도 2004년에 비해 4.2% 증가한 64.9%가 증설에 찬성했다. 또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도도 전년 대비 18.3% 증가한 59.6%를 기록했다.

산자부는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방사성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습득한 학습 효과가 국민 여론에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의 투명한 부지 선정 절차 관리로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설명회와 토론회, 그리고 국민 투표 등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됐고 고유가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이 원인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영광 원전 3호기, 422일 OCTF 달성

지금까지 총 4회 한 주기 무고장 운전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전 3호기가 2004년 11월 10일 계획 예방 정비 작업 후 발전을 재개한 후 422일간 '한 주기 무고장 안전 운전'을 기록했다.

영광 원전 3호기는 1월 5일 오전 8시 10분, 제 9차

계획 예방 정비를 수행하기 위해 발전을 정지했다.

영광 원전 3호기는 지난 1995년 3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총 4회(1998년, 2002년, 2003년, 2006년)의 한 주기 무고장 안전 운전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영광 원전 관계자는 "지난 2005년 8월 영광 원전 4호기가 기록한 468일간의 한 주기 무고장 안전 운전을 달성한 데 이어 영광 원전 3호기가 한 주기 무고장 안전 운전을 달성함으로써 국내 원전 운영 능력의 우수성과 한국 표준형 원전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영광원전 3호기는 계획 예방 정비 기간 중 원자력법에 따른 정기 검사를 수행하며, 원전 연료 교체와 계획에 따른 정비 및 설비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오는 2월 10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 핵연료 부품 브라질에 수출 개시

한전원자력연료, 연료봉 압축스프링 공급 계약 수주

한전원자력연료(주)는 최근 브라질의 핵연료 회사인 INB사와 핵연료봉 압축스프링 8,000여개에 대한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

연료봉 압축 스프링은 핵연료의 운반 및 취급시 펠렛(소결체)의 움직임이나 손상을 최소화하고 연료의 연소시 펠렛의 축방향 팽창을 수용하는 핵연료의 핵심 부품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기술교류협정 체결 후 부품 수출에 대해 협의해온 원자력연료는 이번 수출을 발판으로 내년에도 지지력자체 등 핵연료 주요 부품에 대한 수출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브라질 INB사는 앙그라 원전 2기를 보유한 회사로, 앙그라 원전 1호기는 고리 2호기와 동일한 W16 타입 원자로형이다.

## 고리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 관리 양호 20여종 600여건 방사능 조사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능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대 핵물리 및 방사선기술연구소 김현철 교수팀은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고리원전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 식수, 해수, 해양 생물 등 20여종 600여 건의 방사능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립 16일 부산 기장군 장안 읍사무소에서 열린 고리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김 교수팀은 인공 방사능 핵종으로 세슘(Cs-137), 스트론튬(Sr-90)과 삼중수소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슘과 스트론튬은 과거 1960년대 이전에 행해졌던 대기권 핵실험에 의한 낙진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에 의한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김 교수팀은 밝혔다.

또 빗물에서 법정 허용치의 0.08%에 해당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으나 인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검출된 인공 방사능 핵종이 일반 환경 수준으로 고리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이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 핵물리 및 방사선기술연구소는 1990년부터 고리 원전 주변에 대한 방사능 환경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매년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 국제 정보 보안 관리 체계 표준 인증 획득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내 공공 기관으로 최초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최근 국내 공공 연구 기관 처음으로 IT 서비스 부문의 국제 정보 보안 관리 체계

표준인 BS7799(British Standard 7799)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공공연구 기관에서는 처음이며 전 공공부문에서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BS7799는 1995년 영국에서 제정된 세계 유일의 국제 보안 표준 규격으로, 현재 미국과 유럽 및 일본 등에서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에 따르면 “BS7799 인증 획득은 핵심 기술 정보에 대해 물리적·관리적·기술적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은 결과”라며 “대외적으로 원자력연구소의 정보보안 신뢰성을 한층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보안의 생활화 및 생활보안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IT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원자력연구소의 핵심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연구 기관들의 보안 체계 수립에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S7799는 기존 시스템 위주의 정보보호에서 탈피해, 지속적으로 정보 자산의 위협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정보 보호 관리 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이다.

## 한국원자력연구소-교토대 연구협력협정 체결 중성자 방사화분석과 중성자영상기술 분야 협력키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월 9일, 일본 교토대학 원자로연구소와 연구용원자로의 주요 이용 분야인 중성자 방사화분석과 중성자영상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협력 증진에 합의하고 지난해 말 교토대학에서 연구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소는 이에 따라 기술 협력 및 정보 교류를 위해 교토대와 공동으로 매년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성자 방사화 분석(Neutron Activation Analysis) 기술은 미량의 성분 원소를 비파괴법으로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원자력 분야의 기초연구를 비롯해 재료 과학, 환경 분야, 보건·영양, 범죄 과학과 고고학 등의 분야에서 시험 검사 및 측정 분석 도구로 응용되고 있다.

중성자 영상 기술은 중성자를 이용하여 물질의 내부구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술로, 복잡한 구조물의 내부 검사에 이용된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기술의 산업적 이용 제고와 항공기 부품 등 매우 복잡한 구조물의 내부 검사 기술 확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원자력연구소는 밝혔다.

### 원자력·핵융합연구센터 상호협력협약 체결 핵융합 원천 기술 확보 공동 연구 착수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구랍 29일 핵융합연구센터(소장 신재인)와 핵융합 에너지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원자력연구소와 핵융합연구센터는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 장비, 학술 및 기술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호협력협약 체결과 관련해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연구소가 보유한 G-5 수준의 원자력 기술 및 핵융합 기반 기술에 핵융합연구센터의 핵융합 관련 기술 노하우(know-how)가 접목되면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로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국내 핵융합 발전로 개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소 관계자는 "핵융합로 기술의 실증을 목표로 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2003년에야 가입하는 등 현재로서는 국내 핵융합 관련 연구 여건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핵융합연구센터와의 상호협력협약 체결이 양 기관의 우수 인력 및 기술의 교류를 통해 핵

융합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재가동 갑상선치료제 등 다시 생산, 환자들 비용 부담 줄어든 듯

국내 유일의 중성자 연구 시설로 신소재 개발, 신약개발, 핵연료 개발과 함께 각종 산업 및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1월 4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하나로는 그동안 규제 기관의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테러에 대비한 출입문 교체 작업까지 완료했다. 하나로는 지난해 6월 19일부터 자체 점검과 정기 검사의 지적·권고 사항 보완과 함께 테러에 대비한 보안문 교체 작업으로 가동이 일시 중지됐다.

원자력연구소는 "최근 테러에 대비한 보안문 설치 및 성능 검사를 마치고, 규제 기관의 정기 검사에서 지적된 지적·권고 사항을 시정 조치하여 '하나로'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소 관계자는 "하나로가 정상 가동됨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시설도 재가동에 들어가 방사성 옥소(I-131)의 공급도 곧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갑상선 치료제 '요오드-131'의 공급도 조만간 정상화 될 전망이어서 갑상선 환자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원자력과 사회적 갈등 해소' 심포지엄 개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신부용 교통환경연구원장은 「원자력과 사회적 갈등 구조 해소를 위한 심포지엄」이 1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원자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신뢰

성이 확보돼야 하며, 적절한 홍보 전략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승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추락한다.”며 “신뢰성 있는 기초 자료를 토대로 주요 이해 당사자를 협상에 참여시키고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연관적 협의(Integrative negotiation)’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대 강희동 교수는 “원자력을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의 원자력 정책 관계자,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경주 시민 단체 ‘원전 바로 알기 운동’ 전개 방폐장 사업 투명성 제고 위해

경주핵대책시민연대는 새해부터 경주시민을 상대로 ‘원자력발전소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핵대책시민연대는 중저준위 방사상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를 계기로 원자력 관련 국책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원전이 밀집한 경주의 현실을 알릴 방침이다.

이들은 방폐장 등 국책 사업 유치에 따른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모든 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관찰할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월성원전의 안전한 관리 및 신월성 1.2호기 건설 사업, 방폐장 건설, 양성자가속기 조성, 고준위 폐기물 문제를 모니터링해 시민들에게 공

개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최용환 경주문화원장, 성타 불국사 회주, 김종석 전 기독교연합회장을 공동대표로, 김상태 지방자치개혁센터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방폐장 유치에 대한 보상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시민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 ‘KAERI 홍보 대상’에 방사선이용연구부 선정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구랍 30일, 올해 처음으로 ‘KAERI 홍보대상’을 신설하고 대상에 방사선이용연구부(부장: 변명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방사선이용연구부는 2005년 한 해 동안 방사선이용기술(RT : Radiation Technology)과 관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대국민 이해 증진 및 이를 통한 산업화 증대를 통한 홍보 성과를 인정 받았다.

원자력연구소 관계자는 “특히, 미국항공우주국 우주식품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우주 식품 개발에 참여한 실적을 비롯, 러시아 항공우주청 산하 IBMP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와 우주생명환경 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연구를 추진한 연구 성과 등이 주요 일간지 및 TV 방송 등에 보도되어 국내·외적으로 연구소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소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KAERI 홍보대상’은 원자력 연구 성과 및 현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연구소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에 탁월한 공헌을 한 우수 부서와 소원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한편,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연구원 방사선이용연구부 이주운 박사는 “대상 상금 전액을 정읍시의 불우

청소년을 위해 쓰기로 부원들이 토론을 거쳐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 원자력연료인상 대상에 서정민 핵연료개발 실장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원자력연료(주)(사장 양창국/이하 원자력연료)의 서정민 핵연료개발실장이 2005년도 원자력연료인상 대상을 수상했다.

한전원자력연료(주)는 지난해 12월 30일 한마음관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무식을 개최하고 2005년도 원자력연료인상 대상에 서정민 핵연료개발실장을 선정, 시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정민 핵연료개발실장은 핵연료 개발 인프라 구축 및 핵연료 개발 프로그램 창출·수행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을 받았다고 원자력연료 관계자는 밝혔다.

원자력연료 관계자는 “서 실장은 특히 지난 2004년~2005년도에 걸쳐 전사적으로 추진된 ‘수출 선도형 고성능 고유 핵연료 개발’ 과제의 실무 책임자로서 산업자원부 국가 전략 과제 1순위로 선정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원자력연료인 부문상 수상자로는 경영관리인상에 조연훈 구매팀장, 설계기술인상에 반창환 안전성능해석실 선임연구원, 제조기술인상에 한갑진 품질관리1팀 과장을 각각 선정됐다.

‘원자력연료인상’은 각 분야별로 전문 역량을 갖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해 제정됐다.

### 한국 여성, IAEA 사무국 과장직 첫 진출 전미자씨, 재정정책 담당

한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전미자씨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 과장직(Section Head, Financial Policy and Systems Section)에 진출하게

됐다고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1월 6일 밝혔다.

IAEA 사무국은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전미자씨를 재정정책 과장으로 선발했음을 통보했으며, 전미자씨는 IAEA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3월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IAEA의 재정정책 과장은 사찰 업무를 포함한 IAEA 제반 사업 분야별 예산 배정 관련 정책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전미자씨는 한국외국어대와 미국 워싱턴 대학 MBA 과정을 졸업한 후 미국 공인회계사(CPA) 자격을 취득했으며, 1995년 이후 빈 소재 유엔사무소(UNOV)에서 예산 및 재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했다. 전씨는 2005년 봄 개시된 IAEA 과장직의 공개 경쟁 채용 절차에 응모,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임됐다.

IAEA 사무국에 근무하는 한국인은 총 31명이며 국장직 1명, 과장직 1명 포함 과장급 6명, 과장급 이하 24명이다. 현재 IAEA를 포함, 빈 소재 각종 UN 기구에는 총 39명의 한국인이 재직하고 있다.

### 제2기 「참과학 열린학교」 개최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주관으로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참과학 열린학교’ 교육을 1월 5일부터 27일까지 원자력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연구단지 주변의 초등학교생 52명이 참가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홈페이지 제작 실습과 함께 재미있는 과학 체험을 위한 연구 기관 견학, 지역 봉사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 ‘참과학 열린학교’ 개교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한편, 원자력연구소는 지난해 8월 대전지역 결식 아동으로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 및 로봇시설 견학 등



의 '제1기 열린학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사랑의 인라인 교실」 열어 울진원자력본부, 울진 사랑봉사대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본부장 천추영)는 생활 형편이 여의치 않은 북면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인라인 교실'을 열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울진사랑봉사대는 1월 14일 '제1기 사랑의 인라인 교실' 개강식을 갖고 인라인 기초 강습을 실시했다.

북면삼당침례교회(박철규 목사) 공부방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1기 인라인 강습은 앞으로 5주 동안 진행된다. 또 울진본부 사내 인라인 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인라인 강습은 여름, 겨울 방학 기간을 활용해 연 2회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울진원자력본부는 직원들이 매월 월급의 일정액을 납부해 조성한 러브펀드로 강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인라인 장비 일체를 지원하고 강습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수료증도 전달할 계획이다.

### 복지 시설 어린이 초청 겨울 나들이 월성원자력본부 누키봉사대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누키봉사대(대장 태성은)는 1월 16일 경주 소재 사회 복지 시설인 성애원(아동 양육 시설)과 애가원(모자 보호 시설) 어린이 40여명을 초청해 수안보 사조마을 청소년 수련관에서 스키와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겨울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월성원자력 누키봉사대와 경주에 있는 성애원은 누키봉사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월성원자력에서 활동하던 봉사 동호회인 '사랑나눔회'가 인근 지역인 양남면 상계리에 거주하던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복지 시설을 수소문하던 중 성애원을 알게 되어 지금까지 계속 인연을 맺고 있다. 또 TV 프로에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애가원 어린이가 출연한 것을 보고 월성원자력 직원들이 헌혈증서 130여장을 전달해 지금까지 결연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월성원자력 누키봉사대는 지난해 겨울에도 성애원과 애가원 어린이들을 초청해 홍보부 직원들과 경주 월드컵에서 눈썰매를 타며 하루나들이 행사를 가진 바 있으며 여름에는 축구동호회인 '풋살'에서 하계휴양 시설로 어린이들을 초청해 일일축구 교실을 여는 등 꾸준한 결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누키봉사대는 올 여름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개최할 계획이다.